

# 광주시, 행정기구·정원 조정...미래차산단·통합돌봄 강화

## 시내버스·도서관·동물보호센터 운영 만전 119종합상황실 내 '소방·경찰 원팀' 구성

광주시가 주요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고 시민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는 조직 체계 마련을 위해 행정기구와 공무원 정원을 조정한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필수 현안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등

자치법규 일부개정안'을 지난 6일 입법 예고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에너지·미래차산단 조성·통합돌봄 조직 강화 ▲시내버스·도서관·동물보호센터 준비 및 운영 ▲119상황실 '소방·경찰 원팀' 운영 등이다.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과 RE100 신산업 모델 발굴 등 미래차·데이터·반도체 등 첨단산업 유치를 강화하기 위해 이원화된 에너지 업무를 인공지능산업실 에너지산업과로 일원화한다.  
인공지능산업실 투자산단과에는 미래차국가산단 조성 전담 공무원(5급)을 배치하고 관계 부처 협력 강화와 산단 입주기업 유치를 준비한다.  
복지건강국 돌봄정책과는 통합돌봄 정책의 빈틈을 메우고 보건소·의료기관과 연계하는 차별화된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돌봄 정책과 서비스 표준을 선도에 나갈 계획이다.  
지하철 2호선 개통, 광천권역의 새로운 대중교통체계 도입 등에 맞춰 시내버스 노선 개편이 필요함에 따라 통합광합교통국 대중교통과 기능을 강화한다.  
촉촉한 시행 준비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문화체육실 문화유산자원과는 기능을 재편해 인문도시 진흥과 도서관 개관 준비를 본격화한다.  
인문학 진흥과 지역서점 활성화를 지

원하고 시립 하남도서관(내년 하반기 개관)과 대표 도서관(2025년 개관 예정)을 연결해 '책 읽는 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노벨문학도시 위상을 높여나간다.  
경제창업국 농업동물정책과는 광주 동물보호센터 개관에 따라 기존에 운영 중인 동물보호소를 통합 운영해 개·고양이 보호와 입양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한다.  
광주소방안전본부 119종합상황실에 경찰공무원을 배치해 '소방·경찰 원팀'을 구성한다.

재난 발생 초기부터 협업과 대응으로 현장상황에 빠르게 대처함으로써 시민에게 보다 안전한 재난·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이번 일부 조직 재편으로 본청 기준 15실·국·본부 72과는 현재와 같고 공무원 정원은 경찰공무원 4명이 늘어난 총 4천186명이 된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은 "주요 정책의 차질없는 이행과 시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조직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변은진기자

## 시의회, 강기정 시장 공약사업 예산 칼질

### 5·18무료버스·아시아물역사체험관 등 407억원 삭감 자치기구관리 등 전심성 예산은 90억원 증액 '논란'

광주시의회 상임위원회가 강기정 광주시장 공약사업을 비롯한 내년도 광주시 예산 407억원을 삭감한 반면, 전심성 예산 90억원은 증액해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광주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상임위는 시가 제출한 내년도 본예산 7조6천69억원 중 407억500만원을 감액했다.  
5·18기념일 대중교통 무료 지원과 Y 프로젝트 사업, 산단 무료 셔틀버스 지원 사업 등 강 시장의 공약과 관련한 사업이 주요 대상이 됐다.  
5·18기념일 대중교통 무료 지원은 기념일 당일 시내버스와 도시철도를 무료로 운영하는 정책으로 올해 4월 처음 추진됐다.  
5·18기념일 도시철도 이용객은 6만542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토요일 평균 이용객 4만405명보다 2만137명(49.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시는 내년에도 추진하기 위해 시내버스 요금 지원 예산 2억6천800만

원과 도시철도 5천100만원을 책정했지만 최근 행정자치위원회가 전액 삭감해 논란이 됐다.  
시의회 행자위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긴축 재정 상황에서 꼭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Y 프로젝트 사업의 하나인 아시아 물 역사 테마 체험관 조성사업은 내년 예산 26억3천2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의원들은 시가 이미 10월에 설계가 끝난 송산섬 테마시설이나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도시 방향성과 더 합치하는 영산강 생태 숲길 사업 등에는 예산을 세우지 않고 이달 중순에나 공사 계약이 가능한 체험관 공사비 예산을 미리 편성한 점을 지적했다.  
하남·첨단·평동산단 무료 셔틀버스 예산 4억8천만원의 경우 셔틀 지원보다는 대중교통 편의성 개선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절반이 삭감됐다.  
이 외에도 세계인권도시포럼 민간

위탁금 5억5천만원 중 2억원을 삭감했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예산도 6개 사업 60억9천만원 중 1개 사업 1억2천300만원만 유지됐다.  
공공기관 현장 대화 행사에서 시장 질문 제한 지침을 만들어 논란을 빚었던 광주시 전략추진단의 경우 이전부터 존치 필요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왔는데 2억8천200만원을 감액해 사실상 조직 해체를 요구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반대로 자치구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려는 자치구 도시공원 관리 예산을 기존 25억원에 10억원을 더 늘렸고 양동시장 통맥축제 예산 2억원, 무등시장 야시장 축제 1억원을 신규로 세우는 등 자치구와 주민 자치 사업 예산은 다수 증액됐다.  
내년도 본예산안 심의는 9·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서민 경제와 정책 이행에 필요한 예산이 무더기로 감액돼 이대로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면서 "삭감된 예산 부활을 위해 충분하게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은진기자



겨울철 화재 예방 캠페인  
광주시는 지난 6일 서구 양동시장 일원에서 안전모니터봉사단과 관계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겨울철 화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 (광주시 제공)

## 도,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 수송 등 4개 분야 미세먼지 저감대책 18개 과제 추진

전남도는 8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미세먼지 집중 감축 관리를 위해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매년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 발생 빈도와 농도가 높은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31일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저감 대책을 시행하는 제도다.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 14㎍/㎥ 달성을 목표로 수송, 산업·발전, 도민 생활공간 집중관리, 예측 및 선제대응 등 4개 분야 18개 이행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수송 분야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산업·발전 분야는 대기오염물질 사업장과 자발적 협약을 해 배출량 감축을 유도하고 드론이나 이동형 질량분석시스템 측정차량 등 첨단 감시 장비와 민간점검단을 활용해 산업단지 등 대기배출사업장 밀집지역을 상시 감시·단속한다.  
도민 생활공간 집중관리 분야에선 어린이집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 280개소의 환기설비·공기정화설비 적정

가동 여부 특별점검을 하고,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및 미세먼지 지정센터에 대해 실내공기질과 공기청정기 관리상태 등을 일제 점검한다.  
예측 및 선제대응 분야에선 전남도 대기질정보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대기질 정보를 제공하고 고농도 미세먼지(50㎍/㎥초과) 상황 발생 시 경보발령 신속 전파와 교통전광판, 문자알림서비스를 통한 국민행동요령 홍보 등을 시행한다.  
계절관리제 기간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특·광역시(부산·대구·광주·울산·대전·세종)에선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토·공휴일 제외) 실시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차량을 단속, 진·출입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위반 시에는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시원기자

## 전남도, '1% 저리' 녹색축산기금 지원...24일까지 접수

전남도는 8일 "환경친화 축산 육성 과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2025년 녹색축산육성기금 사업비 200억원을 연리 1% 저리 융자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한도는 시설자금의 경우 농업인

·법인 30억원, 축산물 유통·가공업 30억원이다. 운영자금은 농업인·법인 4억원, 축산물 가공·유통·판매업 6억원 이내로 지원한다. 융자 상환 조건은 시설자금의 경우 2년 거치 8년 균분상환,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사업 신청 대상은 유기·무항생제 축산물인증 농가, HACCP 인증 농가 등 친환경축산 실천 농가, 친환경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판매장 개설자 등이다.  
사업 신청은 오는 24일까지 사업장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양시원기자

## 남도밥상을 지키는 사람들

| 잊혀져 가는 남도음식의 맛과 멋을 총망라!  
남도음식의 산업화·세계화를 위한 기폭제 마련!

남도는 맛의 고장이다. 기름진 땅과 맑은 물에서 고운 햇살을 받으며 자란 청정 농수산물과 넉넉한 인심으로 맛갈스런 맛을 낸다. 이런 남도 음식중에서도 오랫동안 전해 내려온 향토음식을 엄선해 그 가치와 비법 등을 소개했다. 남도 음식의 새로운 진면목은 물론 산업화·세계화를 기대하면서~

**구입문의**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062-650-2078)  
**입금계좌** 광주은행(016-107-323257:예금주-(주)광주매스컴)  
**정 가** 20,000원